

빛장 풀리는 해외여행...기지가 커는 여행업계

자가격리 면제에 여행 문의 빛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곳곳에서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여행 빛장 열리나? “오는 5월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과 ‘트래블버블’ (여행안전구역) 지역 확대에 이어, 21일부터 정부가 해외 입국자 중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시 격리를 면제하면서 해외여행 문의가 늘고 있다.

지역 여행업계는 부랴부랴 3-5월 결혼성수기를 맞아 신혼여행객 수요를 겨냥한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최근 해외 노선 증편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인천과 일본 나리타를 오가는 노선을 6회에서 7회로 늘릴 예정이다. 아시아

결혼 성수기 상품 출시 잇따르고 직원 채용...항공사 해외 노선 증편 국내여행 증가세에 광주공항 운항편 늘어나...대중교통 이용도 증가

나항공도 지난해 4월 이후로 멈췄던 ‘인천-일본 나고야’ 노선 운항을 다음달 재개한다. 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등 기존 노선도 운항 횟수를 늘린다. 4월 3일부터는 하와이 노선도 2년 만에 운항을 재개한다.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는 4월 16일부터 부산-광 노선 운항을 다시 시작한다. 지난해 3월 중단된 뒤 2년 여 만에,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에어부산도 4월 중 부산-광, 부산-사이판 노선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제주항공도 부산-사이판 노선 운항을 오는 30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지역 여행사들도 해외여행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노형백 하나투어 호남사업부 팀장은 “입국자 자

가격리 제한이 풀린다는 소식에 제주도로 향했던 신혼여행객들이 4월-5월 신혼여행을 해외로 눈을 돌려 예약이 밀려오고 있다”면서 “하와이, 몰디브, 괌 등 여행안전구역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노명아 굿초이스투어 대표는 “한때 무안공항 출발의 베트남행 상품이 인기였지만 베트남의 자가 격리가 부활해 모두 취소 됐다”면서 “대신 부산-인천 출발의 문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가족여행객 보다는 골프팀 위주의 소수(4-8명) 여행객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여행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공항 국내선 운항편도 지난해 2월 1051편에 비해 올해 2월은 1216편으로 증가했고, 이용객도

지난해 2월 14만 7801명에 비해 올해 2월 24% 증가해 18만 3234명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중교통 이용도 기지개=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격히 떨어졌던 광주지역 대중교통 이용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 기피현상이 누그러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9년 총 1억 2670만 4443건이었던 광주 시내버스 이용객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8509만 4388건으로 30% 정도 급감했다가, 2021년 8977만 9191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광주도시철도 이용객도 2019년 1931만9090건 에서 2020년 1358만2875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440만 546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2월을 기준으로 보면 발병 전 해인 2019년 2월에는 136만 259명이었던 광주도시철도 이용객이 코로나 발병인 2020년 2월에는 112만 4611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월에는 98만

1349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다시 100만 1971명으로 늘었다. 버스 이용객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1-2월 동안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용객들이 전년에 비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량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따라 방역에 한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0년 기준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중간결과를 발표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광주권의 대중교통 통행량은 34.6% 감소 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는 광역교통 문제 해결과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청소년들 4·16 기억순례 나선다

세월호 8주기 맞아 26일 목포·진도서 희생자 기억·진실 규명 행동 다짐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행동을 다짐한다.

21일 광주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에 따르면 오는 26일 목포신항과 진도 팽목항에서 4·16기억순례 행사가 진행된다.

‘문화행동 S#ARP’과 ‘광주시봉선청소년문화의집’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4·16 기억순례는 광주에서 출발해 목포신항(세월호 선체 견학) → 진도 세월호 기억숲 → 진도 팽목항에 도착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특히 세월호 기억숲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4.16km의 거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원하는 도보순례로 진행된다. 팽목항에 도착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진상규명을 위한 팽목항 현수막 걸기와 팽목 기억문화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번 기억순례는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참여형 ‘세월호 기억행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순례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진도와 목포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토대로 ‘문화행동 S#ARP’, ‘봉선청소년문화의집’과 세월호 기억공간 만들기, 영화제, 거리캠페인, 추모문화제 등의 세월호 기억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4·16기억 순례에 참여하는 광주시봉선청소년문화의집(062-652-0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 청소년들의 4·16기억순례를 준비하고 있는 정민기 봉선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청소년 스스로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행동함으로써 사회적 참사에 관심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실천활동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행동 S#ARP’은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행사로 4월 1일부터 16일까지 광주지역 초·중·고교와 함께하는 ‘학교로 간 세월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5·18민주광장에서 4월 15일-17일 시민분향소를 운영하고, 4월 16일에는 청소년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종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구청 화정아이파크수습지원단 업무 시작

광주시 서구청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수습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붕괴 현장 주변에 내려진 통행금지 해제를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21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한시기구인 ‘아이파크 사고 수습지원단’이 이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에 돌입한 지원단은 이날 정오부터 사고 현장 인근에 내려진 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붕괴된 201동 건물 서쪽 잔해 제거가 마무리되고, 안전 조치가 완료되면서 차량·보행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다.

지원단은 1국 2과 5팀으로 구성된 1년짜리 한시기구로서 피해보상과 관련한 중재·지원, 산업·시민해예, 건물 해체 및 재시공 등 붕괴 사고 수습 업무를 전담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전쟁 난민 구호 촉구

광주시민단체, 긴급모금 캠페인 성금 고려인마을에 전달

광주시민단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촉구와 전쟁 난민 구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YMCA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구호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

주 시민사회단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호소한다. 죽음과 파괴를 초래하는 모든 전쟁을 온 힘을 다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는 한국전쟁을 겪었고, 5·18민중항쟁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정전상태의 분단국에서 살고 있어, 그 어느 나

라 국민보다 전쟁과 난민의 운명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전쟁 난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난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연대에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긴급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 1000여만 원을 고려인 마을 우크라이나 교포에게 전달하고 전쟁 종식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손팻말을 흔드는 캠페인을 펼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